朝鮮日報
第二夕刊
二十七日(木)
本紙朝刊夕刊十二面

英政府、極秘密裏에 和平條件을探索?
伯林放送局의暴露的發表

山口中佐
廿八日京城驛發赴任

佛海空軍 모록코에集結

佛印總督更迭

핏트맨氏 英國의眞意를不知

定例參議會

第一回日滿支 交通懇談會

中支艦隊의活躍

援蔣策源地緬甸
滇緬路線의性格

地勢、産業、貿易

交通과援蔣루트

英國의併呑과民族

伊佛休戰協定全文
伊、지브티港等管理權을確保

明江縣城占領
○○으로猛進擊

히獨總統 奈翁墳墓에參詣

大野總監微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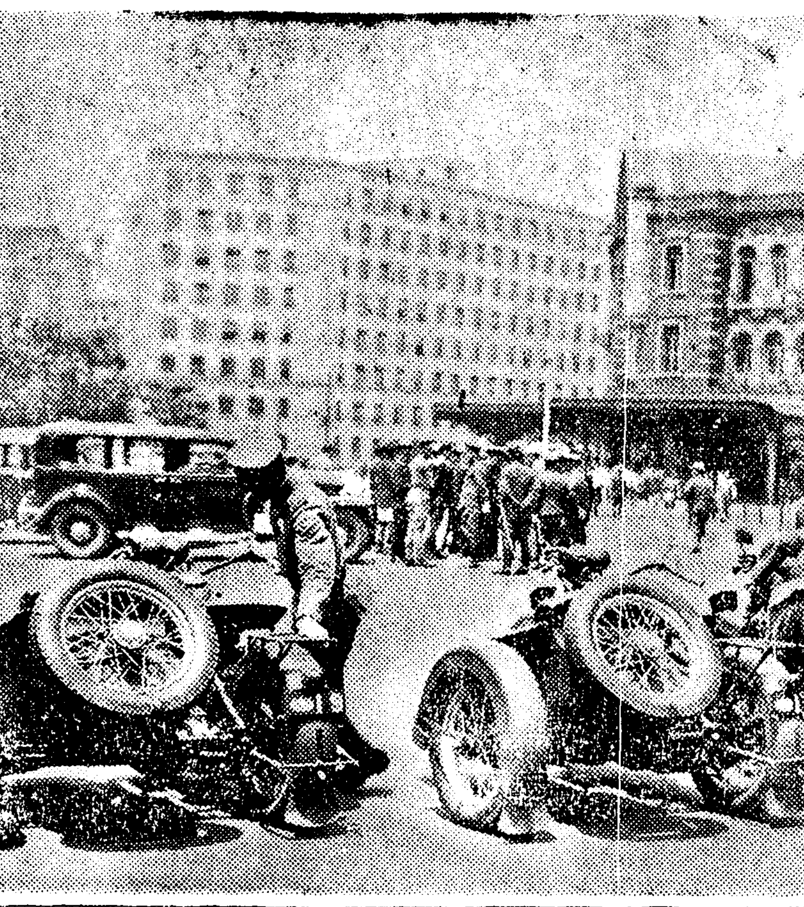
物價委員會 各答申案審議

人事·集會

辭令

遞信辭令

八面鋒



滿洲國皇帝陛下御入京과 東京驛前의 御警衛準備

滿洲國皇帝
大宮御所御訪問
明治神宮、靖國神社에御參拜

各宮家에 御禮使御差遣

高松宮殿下御選奬 功績者表彰에對해 南總督謹話

岐路에선米國
武力參戰은失機?

法律을몰라서 당치안흔悲劇을惹起

廣告

學生募集
滿洲自動車專門學院
滿洲國公認
每月一日新學期開始

新選文學全集朝鮮文學讀本大發賣中

朝報案內

尋人

寫眞

賣建物

월경

タイピスト養成

賣家屋

電話

舞踊研究生募集

女子外務社員募集
一、高女卒業以上
一、二十歲以上
一、履歷書寫眞添付
新興製藥所
堅志町七〇

招聘
支部長級 出張所長級 及外務社員 各數名

尋人 金嘩濟에 대이나

アイスケーキ

大同商會

安岩莊住宅賣切迫近
高級住宅犧牲的廉價

【交通】 敦岩町停留場서五分 競馬場入口서十分 京城府敦岩區劃整理區內오 都心鍾路에서三十分

【水道】 時局下物資難을克服하고 各戶에 完備하엿습니다 電燈도勿論完備하엿습니다

【槪況】 背後에綠陰이오 南傾斜日光과 空氣淸涼하며 京城府區劃整理住宅地임으로 道路와下水가完備하여잇스며 附近은小學校·中學校·專門學校等이 잇서서子弟敎育上最優良地입니다

第一當社가자랑할點은 七尺四方一間을尊重하고 實生活과建築美를 恒常細心하여지은집입니다

第二로는 京城府區劃整理住宅地域임으로 道路下水完備하여잇습니다

價格
壹戶 九、五間부터 十五、五間까지
壹間當四六〇圓부터 四九八圓까지
建坪 一坪當 三七〇圓

申請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番地 (長安빌二層)
朝鮮工營株式會社
電話光化門 二一二七 三九八四

料理店顧客들에게 國債責任購買斷行

料理갑百圓부터國債三割程度로

府內에서試驗的으로七月十日實施

料理店組合에서 먼저國債를사서

府內各料理店에分配·顧客에게賣却

總督府山地理財課長談

料理業者反對表明

今日、代表者가府廳에陳情

强制的이면可能

某料理業者談

反對는엄살이다

旣定方針대로七月부터實施

府稻垣時局總動員課長談

開城驛에도 "노조미"停車

映畵「歸着地」 歸着안나는

經濟事犯取締緩和

指導에좀더努力키로

經濟警察今後運行方針決定

强制販賣令遂發動

慶南에선嚆矢로米穀商에게

東部電話局新設

通話難緩和策으로新堂町에

花籤抽籤의講演?

中央無線에一件求刑

懲役一年求刑

博文寺뒷山에 버리여진乳兒

支那事變記念行事

全朝鮮一齊히實施

"精動""聯盟行事와는別個로

各道知事에게要項通牒

四歲少女轢殺

松亭海雲臺間에서

寫眞電送實演

新聞寫眞展에서

演藝團의慰問받고 第一線將兵感謝

朝鮮軍司令部에書簡遝至

支那人五百圓寄附

價格表示안는商店 鍾路에만百餘處

官幣大社扶餘神宮 七月十日地鎭祭

鎭座祭는十八年十月에執行

白衣勇士慰安會

아버지돈갖고 少女少年避身

卍字大會

自轉車地域對抗戰 萬般準備完了

七月一日平壤서開幕

鄕土訪問蹴球

日本體育蹴球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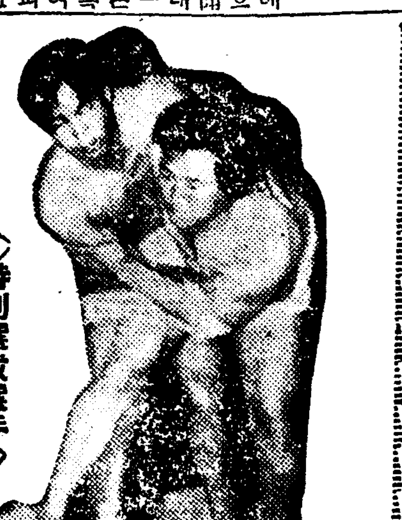
七月九日東京驛出發

- ▲七月十三日 日體對延專
- ▲七月十五日 日體對普成專
- ▲七月十七日 日體對大同工專

延專校內水泳競技

今夜의 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 어린이 ▲七時 經濟解說 ▲八時 精動 ▲八時一〇分 講演 ▲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 ▲八時五〇分 明治大正名作



◇特別選拔選手◇

第一回 全朝鮮都市對抗씨름大會

七月一、二兩日間 午後三時開場 於京城運動場

申請期日 六月廿八日까지　申請場所 本社運動部

種目一般部 (왼씨름과바른씨름一團體各五名)

中等部 (對抗戰은一校에五名) 各都市特別選拔戰은토나멘트式

參加金 無料

主催 中央力道館後援會　後援 朝鮮日報社

七千圓 漢藥全集

土地分讓

場所 京城府出張所附近 永登浦京仁街道並新設産業道路兩側唯一의商業地域及住宅地
面積 約六千坪
設備 一區劃四十坪乃至百坪內外 京城府施行의土地區劃整理區域內로서道路下水道完備
價格 六八圓乃至九八圓
其他 永登浦는大京城의關門이고分讓當該地는永登浦의關門地
城으로서여러분이오래동안期待하시던唯一한商業地帶
申込所 永登浦町四九五番地 ⊙運送店橫 鄭鎬澈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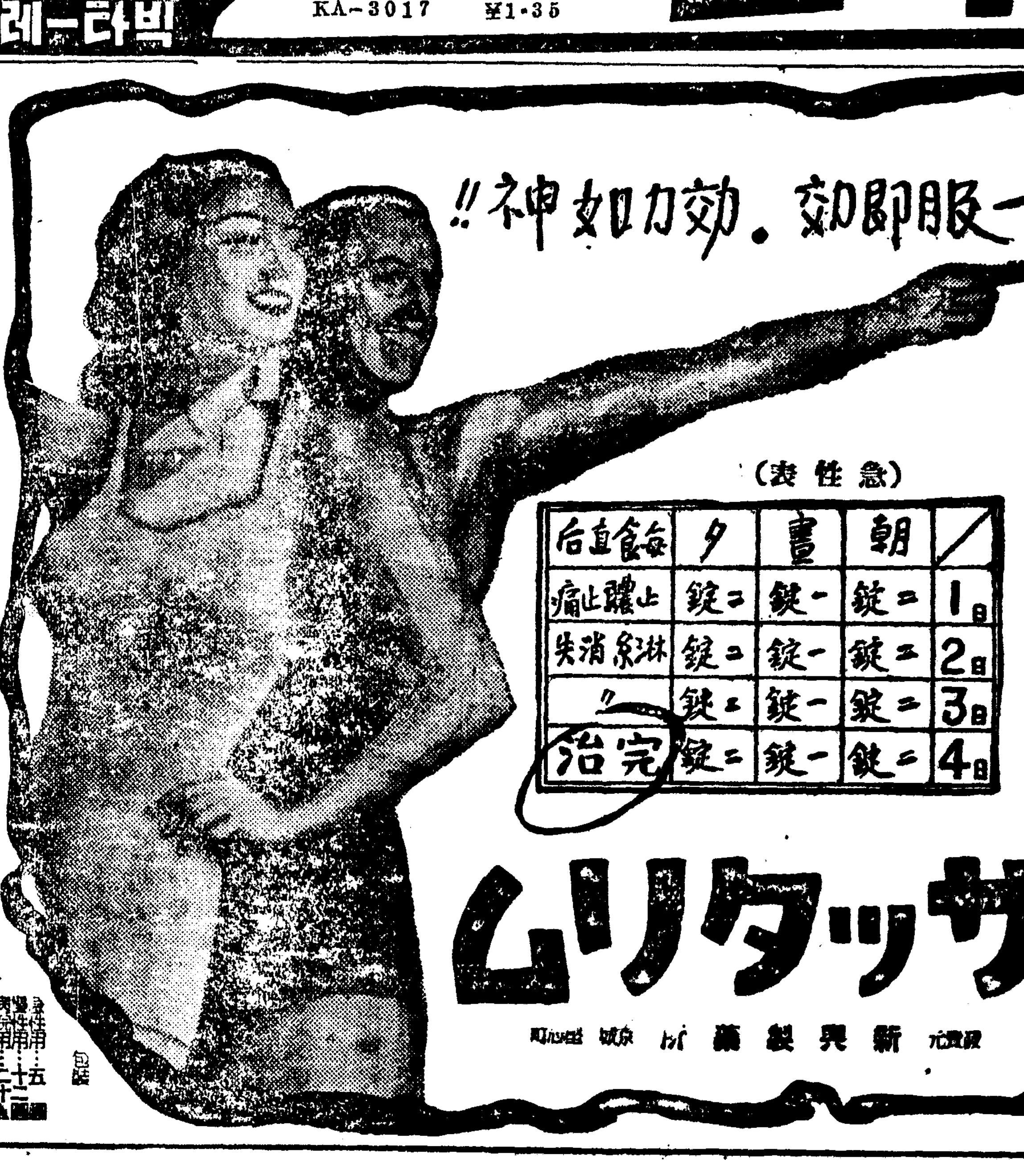
朝鮮料理學 (定價一、三〇 送料一八) 朝光社發行

製麵機 各種製作 在庫豐富 納期迅速 長谷部鐵工所 京城元町一ノ一二七

產婦人科 醫學博士 金錫煥 京城府臥龍町一七八 (授恩町비스停留場前)

生徒募集 公認 東亞自動車學院
▲募集人員 五百名 ▲入學期日 每月一日 ▲修業期間 本科三個月
設備完全 全鮮第一位 奉天商埠地三經路八緯路一四六號

浪曲映畫大會
監督 マキノ正博
片岡千惠藏主演
浪花節の世界 廣澤虎造
28日 29日 二日間限リ
清水港
壽々木米若 口演並特別出演
婦人從軍歌
30日ヨリ 七月2日マデ
新版 宮本武藏
吉川英治原作 片岡千惠藏主演
嚴流島決戰まで
同時上映 ヒットラー總統傳 さくらまつり
吉本 寶塚 直營 京城寶塚劇場



朝鮮音羅馬字表記法

朝鮮語學會制案 ③

第三項 ㅅ 音節의 끝 子音과 아래 音節의 첫 子音이 만날 때 變音되는 경우는 윗 音의 받침은 對照표대로 적고 아래 첫 子音은 發音에 따라 적음을 原則으로 한다。

국나—Gŭgnag 신라—Sinla
동래—Dongnä 삼례Samnyä

附記一。

ㅎ 받침은 그 다음에 오는 ㄱ, ㄷ, ㅂ, ㅈ과 合하여 各各 k, t, p, CZ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아래의 子音과 같은 字로 바꾸어 적되, 發音上 必要없을 때는 아주 빼어 버린다。

例:

(1)
좋고—zoko 끊고—ggŭnko
좋다—zota 끊다—ggŭnta
좋지—zoczi 끊지—ggŭnczi
(ㅎ+ㅂ은 類例가 없음)

(2)
놓네—nonne 좋소—zosso
끊세—ggŭnsse 뚫세—ddulsse

(3)
끊네—ggŭnna
뚫네—ddulna
뚫리다—ddullida
놓치다—noczida

附記二。

ㄷ의 다음에 音節「히」가 올 때는 「ti」로 하지 아니하고 「czi」로 적는다。

例:
굳히다—guczida
묻히다—muczida

附記三。

겹받침 가운데 「ㄼ」만은 「ㅂ」되게 적고, 「ㄼ」은 「넓적」「넓죽」의 경우에만 「ㅂ」되게 적는다。

밟고—babgo 밟다—babda
밟지—babzi 밟다듬이—babdadŭmi
넓적하다—nŏbzŏghada
넓죽하다—nŏbzughada

第四項 複合名詞 사이 「ㅅ」은 子音과 子音의 사이에 있는 것은 아래 子音과 같은 글자로 적고, 子音과 母音의 사이에 있는 것은 「n」으로 적는다。

例:
문ㅅ간—munggan
코ㅅ날—konnal
코ㅅ등—koddung
초ㅅ불—czobbul
갓ㅅ양—gadnyang
담ㅅ요—damnyo
콩ㅅ엿—kongnyŏd

흠ㅅ일—hugnyil

第五項 ㄷ, ㅌ 아래에 從屬的 關係를 가진 「이」가 붙은 것은 口蓋音 「zi」, 「czi」로 적는다。

例:
굳이—guzi 미닫이—midazi
밭이—baczi 핥이다—halczida

第六項 本案은 主로 固有名詞의 表記를 目的한것이나 一般 語彙의 表記도 考慮하였음。

第七項 特別한 경우에는 이 案의 對照를 떠나 特別히 處理할수있음。

國語音表記法

第一項 國語音을 한글로 表記함에는 表音主義로써 하되, 現在 使用하는 字母와 字形만으로써 적는다。

第二項 表音은 아래의 假名 한글 對照表에 依하여 적음을 原則으로 한다。

假名 한글 對照表

五十音	
アイウエオ	아이우에오
カキクケコ	가기구게고(頭音) 까끼꾸께꼬(語中)
サシスセソ	사시스세소
タチツテト	다지쓰데도(頭音) 따찌쓰떼또(語中)
ナニヌネノ	나니누네노
ハヒフヘホ	하히후헤호
マミムメモ	마미무메모
ヤイユエヨ	야이유에요
ラリルレロ	라리루레로
ワヰウヱヲ	와이우에오
濁音	
ガギグゲゴ	가기구게고
ザジズゼゾ	자지즈제조
ダヂヅデド	다지즈데도
バビブベボ	바비부베보
半濁音	
パピプペポ	파피푸페포 빠삐뿌뻬뽀(促音)
ン (撥音)	ㅇ(一般), ㄴ(サ,ザ,タ,ダ,ナ,ラ行앞), ㅁ(マ,バ,パ行앞)
ッ (促音)	ㅅ(サ,タ行앞), ㄱ(カ行앞), ㅂ(パ行앞)
拗音	
キャ キュ キョ	갸 규 교(頭音) 꺄 뀨 꾜(語中)
チャ チュ チョ	자 주 조(頭音) 짜 쭈 쪼(語中)
シュウ ショウ	슈 쇼
ジュウ ジョウ	쥬 죠 (以下此에 準함)

第三項 굳어진 慣用語 또는 特別한 경우의 것은 各各 適當히 實際대로 적되 前 두 項의 主旨를 中心으로 한다。(以上)

生產文學의 展望 (下)

權 煥

그런데 一般創作家들이 生產文學에 對한 關心과 興味가 적으며 또 意識的으로 製作을 回避하려 하는 傾向을 가진 理由는 前述한바와가치 一般作家自身이 生產生活에 對한

經驗과 智識이 不足하여 그 文學의 製作에 만흔 準備的努力이 必要하며 또 準備 그것도 다른것처럼 書籍만에서 어들수 잇는것이 아니고 現地에서 實際的 觀察研究가 必要한때문이 아닌가 한다。그러나 「리알리즘」 創作家는 그러한 困難을 克服하며 鑛山、農、山、漁村等 모든部門에 對한 生產文學의 研究、製作을 爲하여 意識的으로 또 計劃的으로 努力할 必要가 잇다。그것은 即 「리알리즘」 文學의 發展을 爲한 努力이다。

그리고 또 生產文學이란 반드시 小說에 限한 그것이 아니고 詩、演劇、繪畫、音樂等 어느 部門에든지 그러한 藝術이 創作될수잇다。그것은 藝術의 어느 部門이든지 生活의 藝術아닌것이 업는때문이다。그래서 어떠한 形式의 것이라도 生產生活의 描寫에 不可能한 小說、繪畫等이 업슬것이고

生產生活情緒의 表現에 不可能한 詩、音樂이 업슬것이다。다만 前述한바와도가치 生產文學만이 唯一한 「리알리즘」文學이란것이 아니고 또 生產文學이라고 반드시 生產生活의 描寫에 局限하는것이 아니다。그 가운데는 山과 물의 自然風景도 눈물과 우슴의 世態風俗도 綜合的으로 描寫되어야 한다。單純한 生產의 描寫는 生活文學이 아니고 그것은 「產業文學」 或은 生產生活의 記錄文에 不過할것이다。

× × ×

끄트로 評論家에 言及하고 시픈것은 大體로 보아 一般評論家나 創作家들은 創作의 對象에 對하여 關心이 적은것갓다。文學創作에잇서 「무엇을」 과 「어떠케」의 어느것이 더 基本的이고 더 重要한가의 論爭은 至今 새삼스럽게할必要가 업거니와 어쨋든 그두가지中 어느것이든지 모다 藝術創作에잇서서 重要한 要素임은 更論할 餘地도 업다。그러나

傾向文學 退潮以後로 文壇에서는 約束한것과도가치 모든 注意와 努力이 特히 後者即 「어떠케」에 一齊히 集中되어왓다。

修養 合理的心身鍛鍊法 (十一)

陸軍中將 秦眞次

이節度의 訓練에는 左와가튼 種類의 科目에서 身體의 各部에 節度를 부치는 要領을 會得시켜 全教練間을 通하여 아모리 빨리할때에도 반드시 節度바르고 確實하게 行하도록 指導하여야한다

一、銃의操法

「右ヘ、直レ」 (左手의 動作)

이에 依하여 主로 節度를 부치는 要領을 會得시킴

二、「頭右(左)向ケ、直レ(左)」

이에 依하여 主로 다리에 節度를 부치는 要領을 會得시킴

三、「氣ヲ付ケ」、「休メ」、「廻レ右」 (第二動)

이에 依하여 主로 발에 節度를 부치는 要領을 會得시킴

四、伍의 百度 一步右(左)의 教助手의 位置移動等

이에 依하여 主로 各部에 節度를 부치는 要領을 會得시킴

右의 外에 射擊의 三姿勢、裝填著劍 其他 모든 경우에 節度를 부치기를 注意하여 訓練하고 同時에 때로는 機敏한 動作과 節度잇는 動作이 一見어떤 差異가 잇는가를 二三名을 呼出하여 一般에게 見學시켜 써 節度의 必要함을 深刻하게 할것이 可하다。

또 教練外의 日常生活에도 事物에 節度를 바르게하고 빈틈업시 하는 習慣을 養成하도록 指導할것이 緊要하다。

4、機敏性을 養하는 訓練

機敏이라함은 마음에 생각한후 이를 身體의 各部에 實現하기까지의 時間을 最少限으로 短縮함이다。(反應時의 短縮) 即 心身의 사이를 조이는 것으로 「마지메」 하지안흐면 안될 도리이다。

當選漢詩

綠陰

滄東考選

三等之一 京城體府町六八 朴寧緒

丹丹年光鬧鬧林
芳菲纔過又繁陰
滿樓沾翠塵襟淨
入戶噓凉午睡深
雨洗煙痕濃畵意
風翻樹色漾波心
境幽自適閒人趣
復有黃鸝送好音

故朴龍喆氏 追悼及出版記念會

일즉이 詩文學文藝月刊等雜誌를 發刊하고 또 몸소 詩文의 畢生을 쌓아 우리文壇에 寄與한바 크다가 不幸히 그 夭折하여 一般이 아껴마지안든 故朴龍喆氏의 全集二卷이 이번에 그 親友들의 손으로 完結되엇다。이에 文壇의 그 親知諸氏의 發起로 廿七日午後六時부터 市內府民館 小講堂에서 追悼會를 열고 뒤를 니어 여섯時半부터 府民館 三層食堂에서 出版記念會를 열리라는데 出版記念會會費는 一圓五十錢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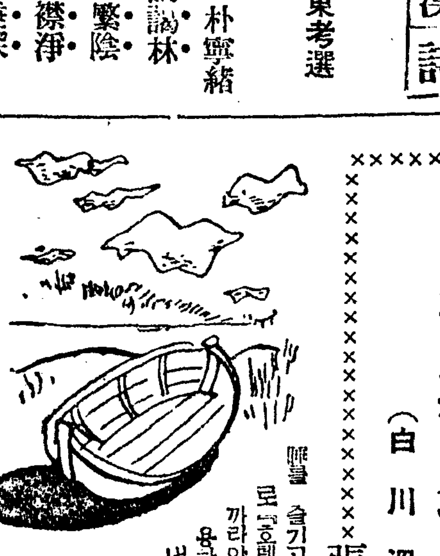
土水 黃述祚氏 遺作展

故土水黃述祚氏 遺作展을 그 親知들의 斡旋으로 二十六日부터 三十日까지 市內和信『갤러리』에서 열리라한다 出品作은 그 親知의 所藏品其他 遺作六十餘點의 多數에 達한다

泉鄕通信 (上)

(白川溫泉에서) 張萬榮

窓이란 窓에는 모두 빠알간 『파라솔』을 펼쳐 놧기때문 그것이 너무 호사스러워 나는 어느 『오페라』에라도 도러와잇는것가튼 그런 錯覺을 이르키군한다。



로 『호텔』은 海底가치 까라안즌것 가치 조용하다。

내가 廣場에나와 어러케면 한들 을 먼 먼 하늘의 구름을바라보고 잇는지도 꽤오래되엇슬게다。

구름은 이제도 흘르고잇다。찬고 흘러가고잇다。

여러젯긴 窓으로 흘러드는 바람은 香기한 『아까시야』의 꼿냄새 로섯이다。

노래는 더욱 못한다。어디 散步나 갈가보다。

나는 『노타이』 바람으로 거리에 나간다。

그리고 아모데로나 거러간다。머리카락을 바람에 함부로 날리우며……들로 부터 부러오는 바람은 들빗처럼 푸르다。

× × ×

噴水가 맑우 솟고 잇는 庭園의 大理石階段을 나려가면 곳 연못이 잇다。연못 가에는 白鳥와가치 하이한 『뽀오트』가 한척。

그하이한 배스전에 써잇는 『초코렛트』빗의 橫書는 『쪼리엣』이라고 읽을수잇다。『뽀오트』의 이름인 모양이다。

附錄

果然冊을읽는가?

★「갤럽輿論調査所」라고하면 米國에서는 特히 大統領選擧때에 한 機能을 發揮하는것이지만 英國輿論調査所는 말하자면 『갤럽』의 英國版으로서 特히 政治關係方面의 輿論을 調査해가지고 그 結果는 日刊紙 『뉴-쓰·크로니클』紙에 발표한다。

讀史詩話

慎后의 哀話 (一)

滄東散人

燕山主와 晉城大君은 다가치 成宗大王의 아들인데 燕山은 廢妃尹氏의 誕生한바요 晉城은 貞顯王后尹氏의 誕生한바이다。燕山이 年長하므로 成宗의 뒤를 이어서 王位에 나아가 暴虐이 날로 甚하여 戊午士禍와 甲子士禍를 일으켜서 그 慘禍한 綱紀를 버서난사람이 別로업섯다。

그때에 晉城은 燕山의 親弟이요 兼하여 名望이 잇슴으로 燕山이 더욱 꺼려하엿다。

晉城의 夫人 慎氏는 左議政 慎守勤의 女인데 賢德이 잇서

朝光 七月號

定價四拾錢

나치스獨逸의 電擊作戰……文章郁
歐洲大戰과 伊米의 今後……成仁基
歐洲大戰과 蘇聯의 動向……李甲燮
歐洲戰局과 進展의 빨칸……溫樂中
蘭領印度의 地理的現勢……鄭甲
蘭領印度의 現況……金贊龍
蘭領印度의 資源과 帝國……文東彪
丁抹視察記……鄭寅燮
歐洲大戰과 新兵器……李青山
戰時下金融政策의 展望……李健赫
▲小說을잘씁시다……蔡萬植
▲朝鮮古語略攷……辛兌鉉
▲月下追猫……申鼎言
婿養子·異姓養子及氏制度에關한朝鮮民事令改正에對하야……宮本元

七月의 隨筆
蘭香……張德祚
꼿다림……柳致眞
死……崔永秀
作家와職業……李石薰
牧丹……咸大勳
初夏의間島……金鎭壽

避姙綺譚 (產婦人科)……金錫煥
手術室에서變性 (醫의日記)……尹泰權

壬午軍變記……車相瓚
暗行御史考……柳子厚
▲高麗磁器再生成功……玄東炎
▲鮮展入選者名簿錄

短篇小說 失明……嚴興燮
歷史小說 前夜……朴鐘和
長篇小說 落照……金史良

七月詩壇
▲열매……金岸曙
▲거리(女人)……金珖燮
▲疲勞……林學洙
▲愁夜……張萬榮
▲마을……尹崑崗
▲鶴……柳致環
▲愛怨譜……吳時泳

小說家의 아버지
▲숨은 人果……崔明翊
▲亦如古人……金東里
▲아버지의눈……鄭人澤
▲追慕……朴魯甲
▲조고만한先覺者……鄭飛石
▲默重다시默重……桂鎔默
▲좀더嚴格하셧스면……金沼葉

▲微笑室

아메리카文明論……韓稚振
歐羅巴의文化는米洲로가나……林學洙

▲五百圓懸賞長篇小說募集
▲東亞聯盟論의擡頭의內鮮一體運動……天野道夫
▲映畫監督木村莊十二氏會見記……李起炫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朝光社發行 振替京城三二七一一番

金融難打開急務
積極的綜合對策必要

金融難問題 從來中小商工業이 苦境에 빠저잇던 內面的 要因의 最大한것으로서 深刻한 金融의 逼迫을 [illegible]

中小金融의 現況 [illegible]

中小商工業對策 ⑤

政府資金의 貸付

朝鮮中小商工金融 [illegible]

生鮮食料品價格
抑制調整策內容
出荷市場、小賣等配給統制
市場선價格表示·行商人監視

一般物品과달리 生鮮食料品에 있어서는그性質이 特殊한故로 價格停止令에서는除外되엇스나 그것이 生活上必需品이어서 그 價格의 [illegible]

一、價格評價가 可能한것에 對하여는 一定한標準에 依하여 그 價格水準을 定하고 取締를 强化할것

二、朝鮮內主要都市의 都賣市場의 取引內容에 對하여는 [illegible]

三、公設市場에있어서의 販賣價 [illegible]

預金利下率內定
金組態度가 問題焦點

朝鮮金融團에서는 二十七日午 [illegible] 一、甲種銀行 定期預金 一厘引下 [illegible]

諸般施設大擴充
專賣收支一億目標
地方專賣局長會議開催

[illegible]

農會春肥配合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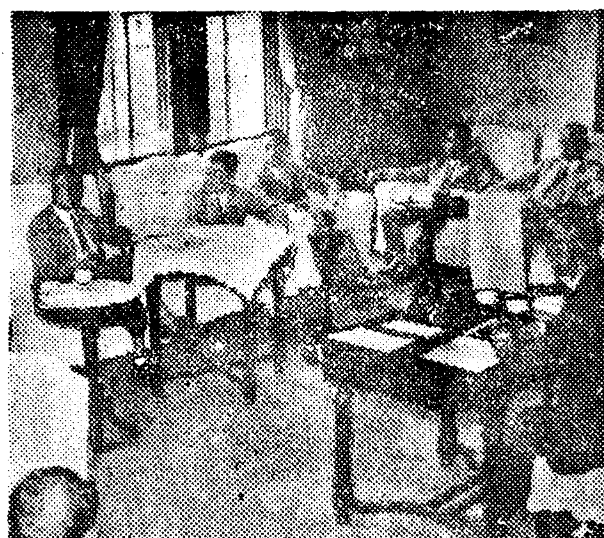
雜穀移入順調
端境期突破無難
所期의百萬石入荷確實

端境期에當面해서 中央配給組合에서는 滿洲雜穀의入手에全力을다하고잇는데 中央組合設立當初부터 理事長代理로서 米配當局 三井物産大長池滿鮮次郞氏는 如左히말한다 滿洲食糧雜穀의 入手에對해서는 滿洲國의 事情으로보아 當初 [illegible]

康德工業石炭開發

[illegible]

朝鮮商議活動期
—統制經濟民間參謀本部로서—
專任理事田村博士囑望



鮮銀券收縮
日銀券增發

[illegible]

都賣物價또續騰
騰貴32品·低落24品·不變27品
全朝鮮主要都市五月中狀況
比前月八厘高、比前年一割六分五厘高

商工課調査에依한五月中全朝鮮主要都市에잇서서의 都賣物價를 [illegible]

▲品類別指數

分類	五月指數	前月比較	前年同月比較
穀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調味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飲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食料品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衣料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屬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建築材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燃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雜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利潤統制重視

[illegible]

株式 鐘紡中心 崩落

前場下落

今日의市勢 二十七日

低落原因

船舶、紡績株下落

今日財界 廿七日

都市別平均指數

京城物價 廿七日

[illegible]

今日現株布勢(正午調)

[illegible]

海外經濟 廿六日

[illegible]

銀行券 廿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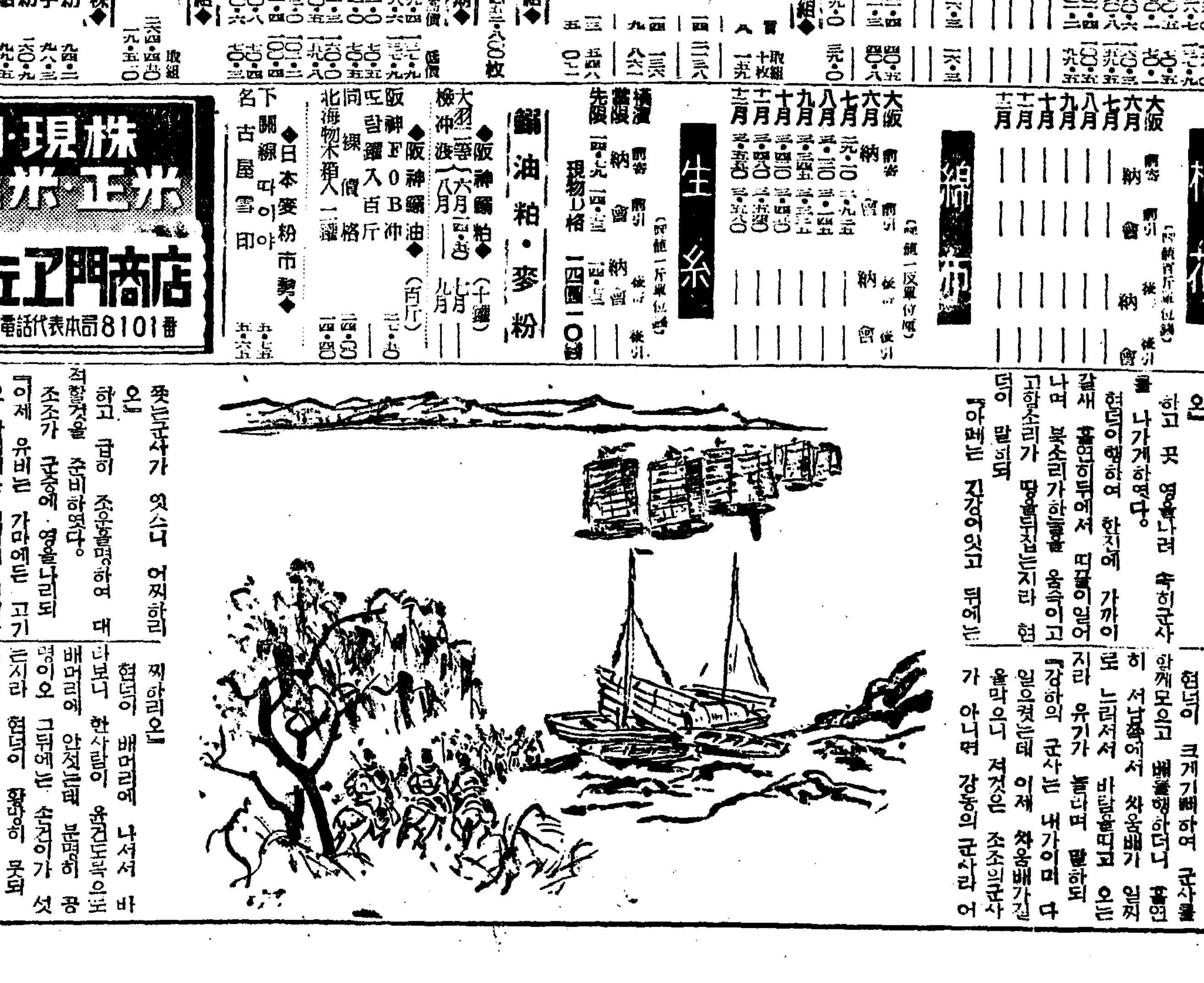
[illegible]

東京短期 / 大阪短期 / 東京現株 / 朝取短期 / 大阪長期 / 金利手形交換 / 對外爲替 / 棉花 / 綿絲 / 生絲 / 鰯油粕·麥粉

[illegible]

株·現·短期 米·正·米·延 吉村榮左エ門商店 京城黃金町 電話代表本局8101番 營業案內呈 株式日報贈呈

三國志
韓龍雲 譯
熊超 畫
【238】

長坂橋大戰(五)

[illegible]